



“은미야, 성호야, 내 새끼 어쩔꼬...” 가족들 애끓는 통곡

빗줄기속 사고현장 접근한 실종자 가족 350명

“내 자식 저 속에 있는데...” 난간 부여잡고 오열

강한 빗줄기가 내린 17일 오전 9시 30분께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가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앞바다에 울렸다.

100t급 여객선은 금세 통곡에 파묻혔다. 더딘 구조 작업 및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해양경찰에 대한 불만도 터트렸다.

진도군의 도움으로 이날 사고 해역을 찾은 실종자 가족 350명은 “은미야”, “성호야” 등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주저앉았다. 2m가 넘는 파도는 가족들의 외침을 덮치며 여객선 뱃머리를 때렸고 내 자식, 혹시 보일까, 실종자 가족들은 해역에서 직선거리로 5km 떨어진 데 멈춘 헬부선을 향해 “더 가까이 여객선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 뛰

어내릴 듯 여객선 난간을 붙잡고 오열하는 가족들도 눈에 띄었다.

군 헬기가 사고 해역 상공을 순회하며 실종자를 찾는 장면을 훑어질 듯 쳐다보며 가슴을 졸이는 가족도 많았다.

비와 바람이 강해지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만 진행됐다. 멀리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여객선이 팽목항으로 뱃머리를 돌릴 때까지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줄곧 다른 실종자 가족을 다독이며 비교적 씩씩한 모습이던 김건우(17)군 누나도 “하늘이 야속하다. 심신이 너무 약해져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여전히 동생이 올 것이라는 희망

을 품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창현(17)군 아버지는 바다를 향해 “이곳저곳에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실종자들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기상 여건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수색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미지(17)양 어머니는 “내 새끼 집어삼킨 저 바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파도만 치니 참으로 야속하고 무섭다”고 했다.

단원과 학생 이모부 오모(36)씨는 “아이들이 선내에 살아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는데 수색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언론 기사를 보면 100여명의 수색 인력이 투입됐다고 나오지만(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상당수 실종자 가족들은 “가족이 저 바다 속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나”면서 살아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다”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중인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안산 단원고의 학부모로 보이는 한 아버지가 두손을 모은채 자녀의 생환을 기도하고 있고(사선 위), 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실종자 가족 안타까운 사연들

외국인 근로자 언니 “중국서 네가족 모여 산다 했는데...”

손자 잃은 할머니 “순진한 내 손주 방송만 믿다 참변”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기적의 생환을 기대했던 287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들 모두는 누구랄 것 없이 한 집안의 등지한 귀한 가족들이었다.

실종자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 부부의 언니도 있었고 승객들 먼저 구조한 뒤 사라진 이도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이돈암(39), 한글회(여·38)씨는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 부모 자랑을 하고 출·퇴근 할 때면 매일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다. 저임금을 받고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부부는 그간 조금씩 모인 돈을 용돈으로 제주도 여행에 나섰다. 임금의 70% 이상은 중국에 사는 아들에게 보냈다.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떠난 이들 부부는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땅을 밟

아보지도 못한 채 소식이 끊겼다.

한씨의 언니(47)는 “자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엄이었다. 이번 여행만 마치면 중국에서 네 가족이 한데 모여 행복하게 살 것이란 말까지 했는데...”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김건우(17·단원과 2년)군은 28개월 된 남조카에게 든든한 외삼촌이었다. 이복남매지만 김군은 주변에서 남매 사이가 각별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누나(25)를 유난히 잘 따랐다. 김군은 누나가 준 용돈을 모아 어린 조카에게 옷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또 요리사가 꿈인 김군은 바쁜 학업 중에도 꾸준히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배운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군은 수하여행을 다녀온 뒤 조카랑 더 놀아주겠다는 말을 남긴 상태여서 가족들의 슬픔이 더했다.

장손인 김성복(17·단원과 2년)군은 수하

여행 전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들떠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심한 독감에 걸려 수하여행을 가지 못했다. 이런 김군의 마음처럼 가족들도 이번 수하여행을 반겼다. 특히 김군은 할머니를 무척 잘 따랐다. 할머니가 예지중지 잘 살핀 덕분이다. 김군은 5년 전 할머니 생일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할머니를 위한 작은 옷 선물을 했다. 할머니는 “순진한 내 손주가 안내방송을 끈이 끈대로 듣고 방안에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배항배(17·단원과 2년)군은 수하여행 당일 날 인천여객선 터미널에서 누나와 전화화를 했다. 짙게 끈 안개 탓에 수하여행이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배군의 누나는 “차라리 그날 안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임준표 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네티즌 반응

“다녀왔습니다...제발, 한마디만 해주라”

단원고 총동문 SNS, 6500여명 글 공유하며 응원

세월호에 갇힌 실종자들의 수색이 더디지면서 단원고등학교 홈페이지와 SNS상에는 생존을 기원하는 바람이 가득하다.

혹시나 실종자들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난시 생존 방법’에 관한 글을 퍼 나르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단원고 단원고등학교 총동문회’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져 진도 실내체육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만들어진지 이틀만에 6500여명이 글을 공유하는 등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객실 안에 이머전시수트(빨간색)가 있는데 꼭 입으세요. 문은 확실히 닫아서 물 못 새어 들어오게 하시고, 핸드폰 배터리 꼭 아끼세요. 열량 높은 초콜릿 같은 거 드시고 곁에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 다 같이 꼭 껴안고 있으세요. 지나친 운동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져서 안 돼요. 끝까지 살아 남아주세요. 당신들을 잃을 순 없어요. 꼭 데리러 갈게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다녀왔

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거다... 제발 제발 한마디만 해주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배들, 선생님들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선배로서 뉴스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가 한심하네요. 진짜 다들 서로 의지하고 버티면서 다같이 물으로 나와라 제발”.

단원고교는 실종된 학생들의 사고수색이 걸리자마자 휴교를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SNS에는 단원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

더딘 수색에 애타는 가족들

“민간 잠수사 투입 직접 수색할 것”

해경 구조 지연·정보 차단 반발...배편 지원 요구도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의 더딘 수색 작업과 정보 차단 등에 반발, 직접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2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차디찬 바다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해경이 민간 잠수사는 아예 배제시킨 채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지 않는 등 해

경의 수색작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일부 가족들은 이날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임시 상황실 주변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수색용 배를 동원해 실종자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잠수부들이 등에 매는 산소통 대신 호스로 공기를 주입받아 작업하는 잠수기 어렵

을 배를 직접 빌려, 현장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또 사고 해역에서 수색에 나선 민간 심해 잠수사들을 투입, 직접 수색 현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가족들이 군·경이 아닌 민간 심해 잠수사 등을 섭외한 이유는 수색 작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해경의 수색작업을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불신감이 크게 작용했다.

실종자 가족은 “시간도 없는데, 해경 측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우리 가 이런 결정을 내렸겠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장 이모저모

다섯살 권모양, 부모·오빠와 이사중 참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 의해 구조된 다섯살 권모양은 부모·오빠(6)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고 있던 중으로 알려졌다. 권양은 구조돼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의 부모들은 17일 오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다행히 언론보도를 확인한 권양의 할머니와 고모가 병원을 찾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김초원 교사, 사고 당일엔 생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김초원 교사는 사고 당일인 16일이 생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학생 33명이 수하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김 교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 묶음이 발견돼 알려졌다. 편지에는 김 교사가 올해 처음으로 답임을 받았지만, 친근하게 대해 인기가 많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사범대 수석졸업한 똑똑한 아이였는데...”

○~주점으로 돌아온 안산 단원고 교사 최혜정(여·24)씨의 유족은 ‘사범대를 수석 졸업한, 모범적인 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망연자실 했다. 사고 이틀날인 17일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된 최씨는 동국대에서 역사와 영어를 복수 전공했다. 그녀는 재학 중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자마자 첫 부임지인 단원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범대를 수석 졸업할 정도로 똑똑하고 꿈 많은 아이였는데 죽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7분 해질 19시 07분 달 뜨기 22시 12분 달지기 07시 53분

미세먼지 '보통'

오전에 비 내리고 안개 짙겠다.

지역	기온	강수량
광주	흐림 11/20°C	
목포	흐림 11/17°C	
여수	가름흐리고 비 11/17°C	
나주	흐림 11/20°C	
완도	가름흐리고 비 12/18°C	
구례	흐림 10/21°C	
강진	흐림 11/18°C	
해남	흐림 12/18°C	
장흥	흐림 11/18°C	
순천	가름흐리고 비 11/21°C	
영광	흐림 11/19°C	
진도	가름흐리고 비 12/17°C	
전주	흐림 11/21°C	
군산	흐림 12/21°C	
남원	흐림 10/20°C	
옥산도	흐림 10/15°C	

바다	중형	파고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만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만바다	북동~동	1.0~2.0m			

〈오전〉 바다 중형 파고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포 04:09 09:17
만바다 북~북동 0.5~1.5m 16:14 21: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여수 10:54 04:48
만바다 북동~동 1.0~2.0m 23:25 16:49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0	12/19	10/20	9/22	11/23	11/24